



지난 1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마치고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90·오른쪽)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4) 할머니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복 70주년 광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광주시, 애국지사 김배길옹 방문 등 다양한 기념행사
전남도, 1945&2015 사진전·1945m 손도장 태극기 체행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경축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광복회원), 각급 기관과 단체인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경축식을 열고 광복절의 의미 등을 되새겼다.

운 시장은 경축식 후 광주 거주 생존 애국지사인 김배길(89)옹의 자택을 방문해 보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시와 청년봉사단체 '착한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14일 광주시청 앞 시민 숲 잔디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광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했다.

행사는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90)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4) 할머니 등이 참석했다. 소녀상은 착사모가 주도한

시민 모금과 재능 기부로 건립됐다. 전남도도 15일 오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관단체장과 애국지사의 유족, 광복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공연,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 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담양 출신 고(故) 박용석 애국지사의 유족이 박 지사를 대신해 건국포장을 받았으며 해방동이(1945년 출생자) 70명이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경축식 이외에도 지난 10일부터 '광복 70년, 1945&2015 특별기획 사진전'을 통해 광복 당시의 모습과 현재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가로 8.15m, 세로 1945m의 손도장 태극기와 희망의 메시지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경축식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220만명 특별 감면

광복절 특사 최대 수혜자는?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최대 수혜자는 220만925명의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다. 일반 형사범도 6408명이 남은 형기를 면제·감형받거나 각종 자격제한이 해제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뺑소니·음주 무면허 제외

'5년내 사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포함 안돼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날 12일이다.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된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정지가 철회된 사람들은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000여명은 자격 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기 때문에 '음주 3진 아웃' 전역 횟수에 포함된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을 하고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 생계형 어민도=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이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자 총 4281명 중 82%가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 112종 중 생계형 위반행위 78종이다. 무허가어업·공조조업·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은 제외됐다. 어업 면허·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2638명의 행정 처분 기록이 삭제된다.

◇ 건설경기 활성화=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을 받아 이달 13일 이전에 건설사가 받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제)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지난 14일부터 해제됐다. 입찰참가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됐다.

특히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업체에도 사면이 이뤄진다. 그러나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업 공인중개사 150명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개성공단 ‘평양時’에 맞춰라”

북, 오늘부터 출입경 시간 30분 늦추라 통보

광복 70주년인 지난 15일부터 표준시를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사용 중인 북한이 개성공단 입출경 시간을 북측 시간에 맞춰 30분 늦추라고 통보해 왔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은 어제 오전 서해 군통신을 통해 '15일부터 남북 군통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새로 제정된 시간에 맞추어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기존 시간대별로 작성된 출입통행계획을 북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개성공단 첫 출경시간은 기존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로, 마지막 입경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된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은 이전보다 30분 늦게 입무를 시작해 30분 늦게 마무리 짓는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근무자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생활활동이 현지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 남북 간의 표준시 적용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경 시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원활한 출입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출입경은 남측이 북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정확한 시각에 도착하지 않으면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이산가족 6만명 명단 내달 북측에 전달

등록자 12만9698명 중 49% 사망... 생존자 80세 이상 54%

1988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국내외 인사는 12만969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6월말까지 정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드러난 사람은 6만3406명(48.9%)으로 전체 등록자 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생존자 6만6292명도 절반 이상(54.3%·3만5천997명)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통일부는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의 현황을 내달 중순까지 파악해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매년 광장이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2월부터 중단된 상태”라면서 “남북의 이산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상봉을 확인해 가능한 분은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 전원을 상대로 한꺼번에 본인 확인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1000명 정도 동원하면 이르면 보름 정도면 전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 개인정보를 북측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이산가족의 경우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된다.

통일부는 “검증 작업까지 명단 완성에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추석 전후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수차례 북측에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확인고 수시·정례 상봉을 요구했을 때 북측이 응하지 않았던 전례와, 북측이 5·24 남북공동조치해제 등을 이산가족 상봉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명단 전달 시점은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 지역 大분석

30~50대 직장인을 위한 속 시원한 부동산 투자 특강

장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5. 8. 18(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2015년 이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 및 트렌드별 투자 전략 대응법

2교시 (1) 아파트의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미래가치 분석
(2) 리스크를 피하는 직장인들의 제대로된 실전 부동산 투자법 공개

3교시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핵심 부동산 및 토지 투자처 매물 공개 및 수익성 분석
(2) 광주 수익형 부동산 선택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영표